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0, No. 116, pp.137-171
<https://doi.org/10.29212/mh.2020..116.13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고려 태조 왕건의 삼년산성전투, 그 배경과 전개과정 검토

김명진*

1. 머리말
2. 928년 삼년산성전투 배경
 - 가. 역사·지리적 배경
 - 나. 전투 전조(前兆)
3. 삼년산성전투 전개과정
4. 맺음말

1. 머리말

고려 태조 왕건(高麗 太祖 王建)이 친정(親征)함에 실패한 전투

* 경북대학교 사학과 강사

중 하나가 928년 삼년산성전투(三年山城戰鬪)였다.¹⁾ 그가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었다. 왕건이 수행한 전투는 때론 승리, 때론 무승부, 때론 패배로 기록되어졌다. 그런데 삼년산성전투는 특별한 면이 있었다. 918년 6월에 왕건은 궁예를 축출하고 고려를 건국하였다.²⁾ 왕건의 고려는 즉위 초에 모반이 잇따랐지만 이를 초기에 수습한 후에 국세(國勢)가 상승하였다.³⁾

고려는 적어도 927년 즈음까지 국세 상승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왕건은 927년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었던 고려와 후백제의 공산동수전투(현 대구 팔공산)에서 대패하였다. 이 전투에서 고려군은 전멸하고, 국왕 왕건은 겨우 살아남았다. 특히 고려의 명장이자 왕건의 충복인 신승겸이 이 전투에서 왕건을 대신하여 전사하였다.⁴⁾ 이러한 공산동수전투 직후에 왕건이 직접 수행한 전투가 삼년산성전투였다.

왕건이 친정하여 대패한 공산동수전투는 통일전쟁기에 그 자신에게 최대 패배라는 불명예를 안겨주었다. 그 전투 직후에 또다시 그가 직접 수행한 전투가 삼년산성전투였다. 그렇다면 두 전투가 무언가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을 터이다. 하지만 삼년산성전투는 아직 연구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가장 큰 원인은 소략한 사료 때문이라 여겨진다. 고려 통일전쟁기 삼년산성전투에 대한 연구는 실행되지 않았지만 그 이전의 삼년산성에 대한 연구는 여러 성과가 있었다.

1)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1년 추7월 병진.

2)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원년 하 6월 병진.

3) 왕건의 즉위 직후 모반에 대한 이해는,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지역과 역사』 30, 부경역사연구소, 2012, 7~11쪽 참고.

4) 공산동수전투와 신승겸에 대해서는,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공산동수전투와 신승겸의 역할」 『한국중세사연구』 52, 한국중세사학회, 2018, 참고.

이에 대한 연구는 고고학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행본⁵⁾을 비롯하여 성곽 자체에 대한 검토⁶⁾ 등이 축적되었다. 그런가하면 문헌사적인 입장에서 7세기 신라·당연합군과 백제의 황산벌전투 시 삼년산성을 신라군 출발지로 본 견해가 있었다.⁷⁾ 이는 그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만큼 삼년산성의 전략적 중요성을 지적한 견해라 하겠다. 928년 삼년산성전투에 대한 단독 연구는 없었지만, 전후 및 주변 정세를 이해할 수 있는 성과는 있었다.

삼년산성전투 배경의 한 이유가 됐을 공산동수전투는 일찍부터 연구 성과가 쌓이었다.⁸⁾ 또한 앞선 연구는 삼년산성과 인접한 매곡성(매곡산성, 현 충북 보은군 회인면)과 일모산성(一牟山城, 연산진, 양성산성, 문의현, 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의 통일전쟁기 동향 및 전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왔다.⁹⁾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이제 삼년산성전투에 대한 실상은 밝혀질 때가 왔다고 판단된다. 삼년산성에 대한 역사·지리적 배경과 전투 전조(前兆)는 우선 검토 대상이다. 그 다음 이 전투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서 전투 실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
- 5) 『三年山城』,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01; 한국성곽학회, 『삼년산성』, 충청북도, 2008.
- 6) 성주탁, 「신라 삼년산성 연구」 『백제연구』 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76; 차용걸, 「삼년산성 곡성형식의 비교연구」 『인문학』 38,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9.
- 7) 서정석, 「백제 산성을 통해 본 황산벌전투의 현장」 『역사교육』 91, 역사교육연구회, 2004; 「의자왕의 전략과 황산벌전투의 실상」 『軍史』 7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 8) 민병하, 「申崇謙과 公山桐蔭 戰鬥」 『軍史』 29, 국방군사연구소, 1994; 류영철, 「공산전투의 재검토」 『향토문화』 9·10합집, 향토문화연구회, 1995/ 「公山戰鬥의 배경과 전개과정」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경인문화사, 2005; 신성재, 「고려와 후백제의 공산전투」 『한국중세사연구』 34, 한국중세사학회, 2012;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공산동수전투와 신승겸의 역할」 『한국중세사연구』 52, 한국중세사학회, 2018.
- 9) 신호철, 「新羅末·高麗初 昧谷城(懷仁)將軍 龔直 - 지방호족 존재양태의 일단-」 『호서문화연구』 10,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1992;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일모산성전투와 공직의 역할」 『軍史』 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2. 928년 삼년산성전투 배경

가. 역사·지리적 배경

삼년산성(三年山城, 오정산성烏頂山城)은 현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에 자리 잡고 있다.¹⁰⁾ 이 성이 자리한 보은군은 대체로 북서쪽 청주시, 북쪽 괴산군, 동쪽 상주시, 남쪽 옥천군에 접한 곳이다. 이 성은 현 보은군청에서 동쪽으로 지도상 직선거리 약 1km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다. 고대부터 존재한 성곽들은 그 이름 및 위치가 불분명한 곳이 많은데 이 성은 이견 없이 명확하다. 삼년산성은 속리산 최고봉인 천왕봉(1,058m)에서 남서쪽으로 직선거리 약 12.7km에 있는 나지막한 산자락에 위치한다.

삼년산성의 성 둘레는 1,680m이고, 높이는 10~20m이고, 폭은 5~7m이다. 이 성은 돌로 쌓은 포곡식산성이며 출입 통로는 동서남북으로 4개의 성문이 있다.¹¹⁾ 성의 서편에 금강의 지류인 보청천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있는데, 보청천 주변이 농경지이다. 이 성은 성 안에 약간의 농토가 있었고, 성 밖에도 나름 기름진 농토가 있으므로 자족 기능을 갖춘 성이라 하겠다. 성 안에 우물은 다섯 개 혹은 여섯 개 정도 있었다고 한다.¹²⁾ 성 안의 지형상 서문쪽으

10) 이 성곽의 정식 문화재 명칭은 ‘보은 삼년산성(報恩 三年山城, 사적 제235호)’이다. 도로명 주소: 보은읍 성주1길 104. 한편, 이 성의 명칭을 오항산석성(烏頂山石城)이라고 한 기록도 있다(『세종장헌대왕실록』 권149, 지리지, 충청도, 청주목 보은현).

11) 삼년산성의 개황에 대해서는, 성주탁, 「신라 삼년산성 연구」 『백제연구』 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76, 137~139쪽 참고.

12) 조선 초에 삼년산성은 둘레가 1천 2백 20보이고,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르지 않는 우물이 여섯 개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세종장헌대왕실록』 권149, 지리지, 충청도, 청주목 보은현). 이 성은 둘레가 3천 6백 99척이고, 높이는 18척이고, 우물은 다섯 개가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권16, 충청도, 보은현, 고적 오정산성).

로 물을 모이게 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으로 보아 식수는 충분한 곳이라 하겠다.

특히 이 성은 그 갖춘 형상이 방어에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격해 오는 적을 추격하여 나아갈 수 있는 유리함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삼년산성은 470년에 축성되었다는 명확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 (신라 자비마립간 13년) 삼년산성(三年山城)을 쌓았다 [삼년이라 함은 처음 공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일을 마쳤기에 이렇게 이름 하였다] .¹³⁾

위는 명확히 완공 시점을 밝히고 있다. 신라 자비마립간(자비왕) 13년, 즉 470년에 삼년산성이 완성되었다. 이 성(城)을 축성함에 3년이 소요되었기에 성의 이름을 삼년(三年)이라 하였으며, 그 자리한 위치가 산이었기에 산성(山城)이라 하였다. 성을 지은 햇수가 그 이름으로 명명된 특이한 사례였다. 그만큼 신라가 이 성을 긴 시간 동안 공들여 쌓았던 것이다. 470년에 완공되었는데 정확한 달은 기록되지 않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축성 시작 연도는 언제일까 궁금하다.

삼년이라는 숫자로 인하여 467년이 축성 시작 연도일 것 같지만, 전통 햇수 세는 방식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삼년산성의 축성 시작 연도는 468년(자비마립간 11)이라 하겠다. 자비마립간은 재위 동안에 몇 차례 축성 및 성 수리를 하였다 [6년(463) 봄 2월에 변경 2개 성 축성, 11년 가을 9월 이하(泥河, 이천泥川)에서 축성, 14년 봄 2월에 모로성 축성, 16년 가을 7월에 명활성(현 경북 경

13)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자비 마립간 13년, “築三年山城 [三年者 自興役始終三年訖功 故名之]”.

주) 수리, 17년에 일모(일모산성)·사시·광석·답달·구례·좌라 등에서 축성] .14)

자비마립간기 축성 및 성 수리를 통해서 다음 사안이 정리된다. 명활성은 수도 금성(경주)에 있는 성이므로 시기에 상관없이 수리를 해야만 했다. 17년에 축성한 일모산성(현 양성산성, 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등은 그 정확한 달이 알려져 있지 않다.¹⁵⁾ 그렇다면 삼년산성의 제대로 된 축성은 대체로 가을 9월부터 봄 2월 사이에 했다고 이해된다. 특히 11년(468) 축성 내용은 좀 더 자세하다. “11년 가을 9월에 하슬라(현 강원 강릉) 사람 가운데 15세 이상 되는 이들을 징발하여 이하(泥河, 이천泥川)에 성을 쌓았다”고 한다.¹⁶⁾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축성 상황이 추정된다.

아마도 자비마립간은 468년부터 대체로 추수기가 끝난 가을 9월 이후부터 봄 2월 사이에 축성 작업을 지시했을 것이다. 추수기 이후에 민(民)을 동원해야 불만이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한 축성 시기는 추수기 이후인 468년 가을 9월부터 다음 해 봄 2월, 469년 가을 9월부터 다음 해 봄 2월, 470년 가을 9월부터 세밀 이전까지로 추정된다. 이렇게 삼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을 터이다. 즉 468년 가을 9월부터 시작하여 470년 세밀 이전에 끝마쳤는데 중간 중간의 농번기는 제외되었으리라 여겨진다.¹⁷⁾

다음은 축성 작업에 동원된 민이 어느 군현 관할인지 생각해 보자. 이하(泥河) 축성 시 동원된 민이 남녀 구분 없이 15세 이상이라

14)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자비마립간.

15) 『삼국사기』 자비마립간조에 나와 있는 일모산성 축성 시기는 474년이 아닌 475년 일 가능성이 높다(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일모산성전투와 공적의 역할」 『軍史』 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64~65쪽).

16)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자비마립간 11년 추9월.

17) 신라 국왕들 모두가 농한기에 축성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자비마립간은 농한기에 축성 작업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농번기에는 축성 작업이 현상유지 정도만 시행되었을 것이다.

하였다. 축성 작업은 주로 성인 남자들이 큰 힘을 발휘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냥 15세 이상이라 했으므로 여자가 참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이에 동원된 민은 축성지인 현 보은군은 물론이고, 인접한 현 경북 상주시와 구미시 일대에 거주하던 이들이 아닐까 한다. 현 상주시와 구미시 일대 민까지 대상 민으로 설정한 이유는 뒤에 기술하지만 일선군(현 경북 구미) 민이 삼년산성 개축 작업에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지리적으로 현 보은군·상주시·구미시는 서에서 동으로 인접해 있는 곳이다.

삼년산성은 그 쓰임새가 고구려를 의식한 측면도 있었겠지만 특히 백제와의 접경 지역이었기에 삼년이라는 정성을 들여 쌓았다. 그렇게 삼년산성은 축성되고 16년 후인 소지마립간(소지왕) 8년(486) 봄 정월에 일선지역(일선군, 현 경북 구미)의 장정(정부丁夫) 3천명을 징발해 고쳐 쌓았다고 한다.¹⁸⁾ 이는 그동안 드러났던 군사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과 수리할 부분 등을 취합하여 개축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특기할만한 큰 정치적 변동이 있었다. 475년에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개로왕을 죽이고 한강 일대를 차지하였다.¹⁹⁾

백제는 즉시 개로왕의 아들 문주왕을 중심으로 웅진(현 충남 공주)으로 피란 천도하였다.²⁰⁾ 삼년산성은 보청천과 이어진 금강으로 연결성이 있었다. 삼년산성은 고구려의 계속될 남진과 백제와의 군사적 긴장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최전선 배후 요새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삼년산성 개축을 촉진시킨 이유였다. 이후에 삼년산성은 더욱 견고한 요새가 되었다.

18)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8년 춘정월. 이때는 소지마립간 시기인데 몇 살 이상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일선군 지역의 남자들만 징발되어 삼년산성(三年山城)과 굴산성(屈山城, 충북 옥천군 청산면 일대)을 고쳐 쌓았다고 한다.

19) 『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3, 개로왕 21년.

20)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문주왕 원년 동10월.

삼년산성은 양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할 적에 주목되는 곳이었다. 554년(백제 성왕 32) 가을 7월에 백제 성왕이 관산성 전투(현 충북 옥천)에서 신라군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대패하였다. 이 전투에서 신라군의 주력은 신주(新州)의 군주(軍主) 김무력(金武力, 김유신의 할아버지)이 이끄는 주의 군사였다. 그리고 이 전투에 인근 군사들이 합세하였다. 이때 성왕을 죽인 신라군은 비장(裨將)인 삼년산군(三年山郡, 삼년산성)의 고간(高干) 도도(都刀)였다. 백제군은 좌평(佐平) 4명과 사졸 2만 9천 6백 명이 전사하고 한 필의 말도 돌아가지 못했다고 한다.²¹⁾ 여기에서 삼년산군은 관산성에서 가까운 삼년산성이 틀림없으므로, 이 성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관산성 전투는 인식시켜 주었다.

시간이 흘러 7세기에 벌어진 신라와 백제의 전쟁은 신라의 승리로 마무리 되었다. 그 과정에 660년(신라 태종무열왕 7) 9월, 당나라 황제가 좌위중랑장(左衛中郎將) 왕문도(王文度)를 신라로 보내어 웅진도독(熊津都督)으로 삼았다. 왕문도가 삼년산성에 도착하여 신라 태종무열왕(김춘추)에게 당황제의 조서를 전달하였다.²²⁾ 이러한 중요한 의식이 삼년산성에서 시행되고 있었다. 이는 삼년산성이 신라와 백제 전쟁 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군사 거점이었다는 것을 재차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하여 삼년산성은 계속해서 주요한 지역 거점이 되었다. 신라와 백제의 전쟁이 끝나고 삼년산성이 기록에 등장한 것은 열기(裂起) 때문이었다. 김유신이 사망한 뒤에 그 만아들인 삼광(三光)이 실권을 잡았다. 김유신 밑에서 큰 전공을 세웠던 열기는 삼광에게 군수 자리를 부탁하였다. 삼광은 이 청을 처음에는 들어주지 않았는데 과거 전공을 상기하고서 삼년산군(三年山郡) 태수

21)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성왕 32년 추7월 ; 권4, 신라본기4, 진흥왕 15년 추7월.

22) 『삼국사기』 권5, 신라본기5, 태종무열왕 7년 9월.

(太守)자리를 열기에게 주었다.²³⁾ 그 시기는 대략 700년 이전 또는 그 직후가 아닐까 한다. 김유신이 673년에 사망했고,²⁴⁾ 삼광이 열기의 전공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그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삼년산성(삼년산군)이 이때까지 그런대로 주요 지역 거점성 역할을 유지하고 있었음을 열기의 행위를 통해 알 수 있다.

이후 삼년산성이 다시 주목되었던 것은 김헌창(金憲昌)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는 중앙에서 밀려나 지방으로 맴돌았다. 무진주(현 광주광역시)·청주(靑州, 현 경남 진주)·웅천주(현 충남 공주)의 도독²⁵⁾을 지낸 김헌창은 822년(헌덕왕 14) 3월에 반란을 일으켰다.²⁶⁾ 『삼국사기』에서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했다하여²⁷⁾ 반역했다고 한다. 이는 신라시대 최대의 반란 사건이었다. 사료의 내용에 의하면 김주원의 왕위 계승 실패가 김헌창난의 주원인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과 함께 계속 지방으로만 맴돌던 김헌창 자신의 소외감이 더해지고, 중앙에 대한 지방민의 소외감까지 맞물리면서 전국적인 난으로 확산되었다고 판단된다.²⁸⁾

당시 김헌창은 삼년산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신라군은 김헌창의 반란군이 점거하고 있었던 삼년산성을 공격하여 승리하였다. 김헌창군은 바로 옆 속리산에도 포진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신라군에 의

23) 『삼국사기』 권47, 열전7, 열기. 삼년산군은 곧 삼년산성이라 하겠다.

24) 『삼국사기』 권43, 열전3, 김유신 하.

25) 김헌창의 도독 역임에 대해서는 ‘무진주도독은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헌덕왕, 5년 정월’, ‘청주도독(靑州都督)은 헌덕왕, 8년 정월’, ‘웅천주도독은 헌덕왕, 13년 4월’ 참고.

26)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헌덕왕, 14년 3월.

27) 선덕왕이 후사 아들 없이 사망하자, 처음에 김주원이 다음 왕으로 추대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김경신이 즉위하였으니 바로 원성왕이었다(『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원성왕, 원년).

28) 김헌창의 난은 ‘주보돈, 『新羅 下代 金憲昌의 亂과 그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51, 한국고대사학회, 2008’과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공주 일대 공략과정 검토』 『한국중세사연구』 56, 한국중세사학회, 2019, 16~17쪽’ 참고.

해 피멸되었다. 이때 삼년산성에 김헌창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 전투에서 패배함으로써 김헌창의 세력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결국 김헌창은 웅진(현 충남 공주)으로 피하며 항전하려 하였으나 대세가 실패로 귀결되므로 자살하였다.²⁹⁾

삼년산성은 김헌창 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 세력이 맞부딪치는 접경지였을 때 중요시 되는 군사 거점이라는 것이다. 신라 중앙정부와 반기를 든 김헌창의 세력이 접경을 이루었던 곳은 삼년산성이었다. 이처럼 두 세력의 접경을 이루고 있는 지점에 삼년산성이 자리를 잡게 되면 두 세력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곳을 확보한 세력이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기 때문이다. 결국 김헌창은 삼년산성전투에서 실패함으로써 패권을 잡으려는 야망이 좌절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9세기 말과 10세기 초에 새로운 양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삼년산성은 다시 주목되었다. 왕건의 고려와 견훤의 후백제(당시 나라 이름은 백제)가 대립할 적에 삼년산성은 재등장하였다.

나. 전투 전조(前兆)

신라와 백제, 신라 중앙정부와 김헌창의 반란세력, 이렇게 양 세력이 삼년산성 일대에서 대립하고 있을 적에는 동·서에 두 진영이 포진하고 있었다. 10세기 전후에는 남·북으로 포진하는 경계에 삼년산성이 자리 잡게 되었는데, 그 과정은 이렇다. 먼저 신라는 889

29) 『삼국사기』 권10, 신라본기10, 헌덕왕 14년 3월. 왕문도와 김헌창의 행위를 통해 삼년산성이 중요한 교통로상에 있었던 요해처라는 견해가 참고된다(서정석, 『백제 산성을 통해 본 황산벌전투의 현장』 『역사교육』 91, 역사교육연구회, 2004, 142~143쪽). 다만 세세한 교통로(진군로)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필요도 있다.

년(신라 진성여왕 3)을 기점으로 급속히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다. 889년에 신라 중앙정부는 여러 주(州)와 군(郡)에서 공물과 부세를 보내오지 않자, 창고가 비고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진성여왕은 사신들을 지방으로 보내 독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도적들이 마치 벌떼처럼 일어났다고 한다. 이때 사벌주(현 경북 상주)에서 원종(元宗)과 애노(哀奴)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³⁰⁾

이를 기점으로 지방의 상당 부분이 분열되며 자립하였다. 지역세력(호족)들이 특정 지역의 성을 중심으로 선택하며 신라 중앙정부로부터 이탈하였다. 이러한 대변화에 충청지역도 예외는 없었다.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는 공주장군 홍기(현 충남 공주), 운주장군 공준(홍규, 현 충남 홍성), 매곡성장군 공직(龔直, 현 충북 보은군 회인면) 등이다.³¹⁾ 원종과 애노가 반란한 사벌주 서쪽 가까운 곳에 삼년산성이 있다. 삼년산성 바로 서쪽에 매곡성(매곡산성)이 있고 여기에 지역세력인 공직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매곡성 바로 서쪽에 있는 일모산성에도 지역세력이 있었다. 그렇다면 삼년산성처럼 견고한 요새에 당연히 지역세력이 웅거하고 있었을 터이다. 일모산성과 삼년산성의 지역세력에 대해서는 뒤에 기술하도록 하겠다. 지역세력이 있는 사벌주와 매곡성 사이에 자리한 삼년산성에 지역세력이 있었을 것이란 가정은 충분히 설정 가능한 것이라 하겠다. 다만 그 지역세력의 이름이 안 알려졌을 뿐이다. 고려 태조 왕건이 928년에 삼년산성을 공격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삼년산성의 지역세력은 일찍이 후백제 견훤 휘하에 있었다는 이해가 성립된다.

30) 『삼국사기』 권11, 신라본기11, 진성왕 3년.

31) 당시 지역세력들은 과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자칭장군’이라 내세운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삼한일통과 왕실 신성화 검토」 『한국중세사연구』 46, 한국중세사학회, 2016, 11~18쪽).

진성여왕대에 신라는 대분열하였는데 지방은 차츰 견훤과 궁예가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지역세력들은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며 견훤 또는 궁예의 휘하로 들어갔다. 그러다가 918년 6월에 초심을 잃고 민심마저 잃은 궁예를 왕건이 몰아내고 즉위하였다.³²⁾ 고려 국왕으로 즉위한 왕건은 후백제 국왕 견훤과는 적대적이었지만 신라(경명왕, 경애왕)와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기조 속에 고려의 국세는 상승하는 형상이었다. 고려는 여러 전선에서 유리한 전과들을 올리고 있었다.³³⁾

그러다가 926년에 특이한 사건이 발발하였다. 전해인 925년 겨울 10월에 조물군(조물성)³⁴⁾에서 양국은 질자(質子)를 교환하였다. 왕건의 사촌 동생(당제堂弟)인 왕신(王信)과 견훤의 사위(외생外甥) 진호(眞虎)가 양측의 질자로 교환되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후인 926년 여름 4월에 후백제 질자인 진호가 병사하고 말았다. 이를 견훤은 고려가 일부러 죽였다고 분노하였다. 결국 고려 질자 왕신은 후백제에서 처형당하고 두 진영의 대격돌이 예상되었다.³⁵⁾

이러한 정세 속에서 927년에 양국은 유난히 빈번한 격돌을 하게 되었다. 후백제 입장에서 볼 때, 고려와 신라는 표면상 우호적인 관계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고려의 국세가 점차 상승세를 보이면서 후백제를 압박하고 있는 형세였다. 더욱이 양국의 교환질자가 사망하여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군사적 분위기를 감안하면서 927년(태조 10)에 벌어진 양국의 군사적 충돌을 정리해 보자.

32)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원년 하6월 병진.

33)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공산동수전투와 신승겸의 역할」 『한국중세사연구』 52, 한국중세사학회, 2018, 42~44쪽.

34) 조물성의 위치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현 경북 내륙의 어느 곳으로 추정될 뿐이다.

35)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質子政策에 대한 검토」 『한국중세사연구』 35, 한국중세사학회, 2013, 159~161쪽. 이때 왕신과 진호는 그 성격이 국외질자(외교질자)이면서 교환질자였다.

① (927년 봄 정월 을묘일, 고려 태조 왕건이) 친히 백제 용주(龍州)를 정벌하매 항복하였다. 이때에 견훤이 군은 약속을 위반하고, 거둬둔 군사를 일으켜 (고려) 변경을 침범하였으나 왕(태조 왕건)은 오랫동안 마음 속에 넣어두며 참아왔다. (마침내) 견훤의 죄악이 더 쌓이어 자못 (우리 고려를) 세차게 병탄하려는 의도가 있었으므로 왕이 이를 쳤던 것이다. 신라왕(경애왕)이 출병하여 우리를 도왔다.³⁶⁾

② (927년 3월 신유일) 왕(태조 왕건)이 운주(運州, 현 충남 홍성)로 쳐들어가 그 성주 경준(兢俊, 홍규)을 성 아래에서 깨뜨렸다.³⁷⁾

③ (927년 3월 갑자일, 고려가) 근품성(近品城, 현 경북 문경시 산양면)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³⁸⁾

④ (927년 여름 4월 임술일) 해군장군 영창(英昌)·능식(能式) 등을 시켜 수군을 거느리고 가서 강주(康州, 현 경남 진주)를 공격하게 하였다. (원정군은) 전이산(轉伊山, 현 경남 남해)·노포(老浦)·평서산(平西山, 현 경남 남해)·돌산(突山, 현 전남 여수시 돌산읍) 등, 4개 항을 함락시키고 사람과 물자를 획득하여 돌아왔다.³⁹⁾

⑤ (927년 여름 4월 을축일) 왕(왕건)이 웅주(현 충남 공주)를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⁴⁰⁾

⑥ (927년 가을 7월 무오일) 원보 재충(在忠)·김락(金樂) 등을 보내

36)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춘정월 을묘, “親伐百濟龍州降之時甄蓋違盟 屢舉兵侵邊 王含忍久之 益益稔惡 頗欲強吞 故王伐之 新羅王出兵助之”.

37)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3월 신유, “王入運州 敗其城主兢俊於城下”.

38)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3월 갑자, “攻下近品城”.

39)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하4월 임술, “遣海軍將軍英昌能式等 率舟師往 擊康州 下轉伊山 老浦 平西山 突山等四鄉 虜人物而還”.

40)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하4월 을축, “王攻熊州 不克”.

대량성(大良城, 현 경남 합천)을 공격하여 깨뜨리고 (후백제) 장군 추허조(鄒許祖) 등 30여 명을 사로잡았다.⁴¹⁾

⑦ (927년 9월) 견훤이 근품성(近品城)을 공격하여 불사르고, (이어서) 나아가 신라의 고을부(高鬱府, 현 경북 영천)를 습격하고, 신라도성(현 경북 경주) 가까이까지 위협하였다. 신라왕(경애왕)이 연식을 보내 급한 상황을 알려왔다. 왕(태조 왕건)이 시중 공훤(公萱)·대상 손행(孫幸)·정조 연주(聯珠) 등에게 이르기를, “신라가 우리와 더불어 함께한 지가 이미 오래이다. 지금 (신라와 그 왕이) 위급하니 구원하지 않을 수 없다”하며 공훤 등을 보내 1만 명 군사로 나아가게 하였다. …… 그 때 신라왕은 비빈(妃嬪) 중척(宗戚)들과 함께 포석정에 나가 술자리를 벌여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후백제) 군사가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창졸간 어찌할 바를 몰랐다. …… 견훤은 …… 왕을 찾아내어 군중(軍中)에서 꺾박하여 자살하게 하니 …… 왕(신라 경애왕)의 외사촌 동생 김부(金傅)를 왕(경순왕)으로 세우고 …… 왕(태조 왕건)이 이를 듣고 화를 크게 내더니, 사절을 보내어 조문과 제사를 치르게 하고, 직접 정예 기병 5천을 이끌고 공산동수(公山桐蔭, 현 대구 팔공산)에서 견훤을 맞아 큰 싸움을 했는데 불리하였다. 견훤의 군사가 왕을 포위하여 (형세가) 매우 위급하였다. (고려군) 대장 신승겸·김락이 힘껏 싸우다가 죽었다. 각 부대들은 패배하였으며 왕(왕건)은 겨우 몸만 피하였다. 견훤은 승리한 기세를 타서 대목군(大木郡, 현 경북 칠곡군 약목면)을 취하고 들판에 쌓인 곡식들을 모조리 불살라 버렸다.⁴²⁾

41)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추7월 무오, “遣元甫在忠金樂等 攻破大良城 虜將軍鄒許祖等三十餘人”.

42)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9월, “甄萱攻燒近品城 進襲新羅高鬱府 逼至郊畿 新羅王遣連式告急 王謂侍中公萱 大相孫幸 正朝聯珠等曰 新羅與我同好已久 今有急 不可不救 遣公萱等 以兵一萬赴之 …… 時羅王與妃嬪宗戚 出遊鮑石亭 置酒娛樂 忽聞兵至 倉卒不知所爲 …… 萱 …… 索王 置軍中 逼令自盡 …… 立王表弟金傅爲王 …… 王聞之大怒 遣使弔祭 親帥精騎五千 邀萱於公山桐蔭 大戰不利 萱兵圍王甚急 大將申崇謙 金樂力戰死之 諸軍破北 王僅以身免 萱乘勝 取大木郡 燒盡田野積聚”.

⑧ (927년 겨울 10월) 견훤이 장수를 파견하여 벽진군(碧珍郡, 현 경북 성주)을 침략하고 대목(大木, 현 경북 칠곡군 약목면)·소목(小木, 현 경북 구미시 인동동) 두 군의 익은 벼를 베어버렸다.⁴³⁾

⑨ (927년 11월, 후백제군이) 벽진군의 벼와 곡식을 불살랐으며 (고려 의) 정조 색상(索湘)이 여기서 전사하였다.⁴⁴⁾

이상 정리한 내용은 927년에 벌어진 고려와 후백제 양국의 격돌 사례들이다. 양국이 모두 9차례나 격돌하였다. 이는 통일전쟁기에 한 해 동안 벌어진 것으로는 최다였다. ①의 정월 전투부터 ⑥의 7월 전투까지는 ⑤의 웅주전투(현 충남 공주)를 제외하고 고려군이 승리하였다. 여기에 더해 전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8월에도 고려군에게 유리한 사건이 벌어졌다. 8월 병술일에 태조 왕건이 강주(康州, 현 경남 진주)를 순행할 적에, 고사갈이성(高思葛伊城, 현 경북 문경) 성주 흥달(興達)이 귀부하였다. 이에 백제(후백제)의 여러 성을 지키던 관리들이 모두 항복하며 귀부하였다고 한다.⁴⁵⁾

이처럼 927년 9월부터 진행된 공산동수전투 이전에 후백제 국왕 견훤은 계속 불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공산동수전투 이전에 벌어진 6차례 전투에서 웅주전투를 제외하고 후백제가 모두 패배하였다. 웅주전투도 고려군의 공격이 실패한 것이지 패배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8월에는 고사갈이성 성주 흥달을 비롯한 일대의 여러 성을 지키던 관리들까지도 왕건에게 귀부하였다. 견훤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야만 했다.

43)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동10월, “甄萱遣將 侵碧珍郡 芟大小木二郡禾稼”.

44)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11월, “燒碧珍郡稻穀 正朝索湘戰死之”.

45)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0년 8월 병술, “王徇康州 高思葛伊城 城主興達歸款 於是 百濟諸城守 皆降附”.

이러한 상황 이후에 벌어진 전투가 공산동수전투였다. 이 전투의 여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직전에 발생한 여러 전투 결과 때문이었다. ⑧과 ⑨의 벽진군전투는 공산동수전투의 연장선에서 벌어진 전투였다. 실제 공산동수전투는 9월의 근포성 충돌부터 시작하여 11월 까지 지속되었다. 특히 공산 동수에서의 혈투는 10월에 벌어진 것이었다.⁴⁶⁾ 왕건은 공산동수전투에서 자신의 재위 기간 동안 최대의 패배를 당하였다. 고려 국세의 상승세는 이 전투의 패배로 말미암아 꺾이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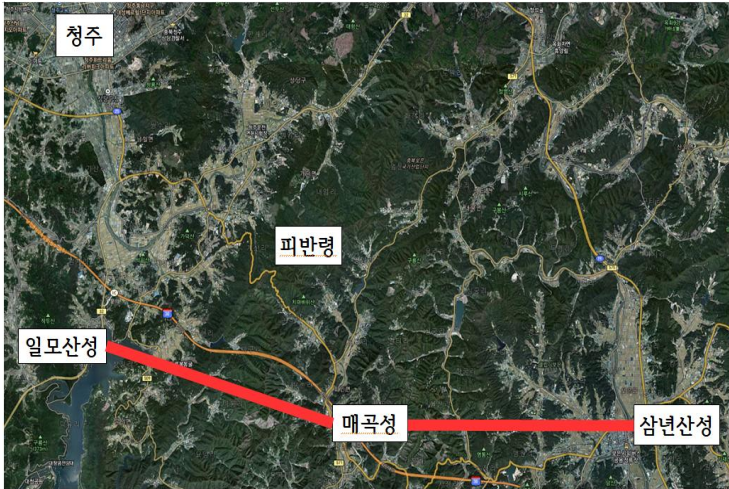
이제 왕건이 국면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⁴⁷⁾ 그리고 그는 공산동수전투에서 패배한 근본 원인 분석 및 타개책을 찾아야 했다. 왕건은 충청지역을 비롯한 중부내륙 남쪽으로 영역을 확장하려면 후백제 중심 방어선을 깨뜨려야만 했다. 한편, 삼년산성의 서편에 위치한 매곡성(매곡산성, 충북 보은군 회인면)은 928년 당시 후백제 영역이었다. 여기에 더해 매곡성의 서편에 위치한 일모산성(一牟山城, 연산진, 양성산성, 문의현, 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도 후백제 영역이었다.

삼년산성의 서편 가까운 곳의 비슷한 위도에 매곡성이 있고, 매곡성 서편 가까운 곳에 일모산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일모산성은 위도상 약간 북쪽이긴 하지만 대체로 이 3성은 거의 동서 일직선상에 위치해 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삼년산성, 매곡성, 일모산성이 거의 일직선으로 견고한 전력선(戰力線)을 가지고 있는 형상이었다. 이 전력선은 후백제의 대 고려 방어선이자 진격 출발선이었다.

46)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공산동수전투와 신승겸의 역할」 『한국중세사연구』 52, 한국중세사학회, 2018, 55~56쪽.

47) 고려는 당시 경상지역에 집중된 후백제 건원의 군사적 관심과 활동을 타 지역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삼년산성을 공격했다는 견해가 있다. 일리(一理)가 있는 견해라 하겠다(신성재, 『후삼국 통일전쟁사 연구』, 혜안, 2018, 46~48쪽).

<그림 1> 삼년산성·매곡성·일모산성의 후백제 전력선(戰力線)>



* 출처: 구글지도 편집

왕건은 남쪽 내륙으로 고려의 영역을 확장하려면 이 3성의 후백제 방어선을 깨뜨려야만 했다. <그림 1>은 3성의 후백제 전력선(방어선)을 간략하게 그려본 것이다. 3성의 지도상 직선거리는 삼년산성에서 매곡성까지 약 12.6km이고, 매곡성에서 일모산성까지 약 10.2km이다. 왕건은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복합적인 이유로 인하여 이 3성 중에서 삼년산성을 먼저 공격하고자 하였다.

3. 삼년산성전투 전개과정

왕건은 927년 9월부터 시작된 공산동수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대 후백제 타격을 위한 목표물로 삼년산성을 선택하였다. 공산동수전투 패배 이후에도 앞에서 제시한 ⑧과 ⑨에 열거한 것처럼 벽진군(현

경북 성주) 일대에서 고려군은 연달아 패배하였다. 해가 바뀌어 928년(태조 11)이 되었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고려군은 928년 정월에 벌어진 초팔성전투(현 경남 합천군 초계면)⁴⁸⁾와 5월에 벌어진 강주전투(현 경남 진주)에서도 후백제군과 싸웠으나 패배하였다.⁴⁹⁾ 이어서 가을 7월이 되었다.

- (928년 가을 7월 병진일) 왕이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삼년산성을 쳤으나 이기지 못하고 결국 청주(靑州, 淸州, 현 충북 청주)로 갔다.⁵⁰⁾

통일전쟁기 삼년산성전투에 대한 주 내용은 위에 제시한 기록이 전부이다. 이 같은 소략한 내용으로 인하여 이 전투는 그간 연구 주제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공산동수전투 이후에 왕건이 직접 수행한 전투가 928년 가을 7월에 벌어진 삼년산성전투였다. 대체로 고려와 후백제 양국은 농한기에 전투를 벌이곤 하였다. 백성들의 식량 문제 해결, 군량미 확보, 군 인력 동원 등의 이유로 양국은 가급적 농한기에 군사를 동원한 경우가 많았다. 아니면 어느 정도 수확을 마친 9월에 군사 동원이 시행되곤 하였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산재하기도 하였다.⁵¹⁾ 국왕이 농한기가 아닌 7월에 직접 친정한 경우는 그만큼 절실했다는 것이다. 그 선택지가 왜 삼년산성이었을까 궁금하다. 국왕이 친정한 대상지는 그만큼 군사적으로 중요한 성이라는 것이다.

삼년산성은 현 충북 보은군 보은읍 어암리에 자리하고 있다. 과거 신라와 백제 또는 신라 중앙정부와 김헌창의 반란군이 동서로

48)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1년 춘정월 을해.

49)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1년 5월 경신.

50)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1년 추7월 병진, “自將擊三年山城不克 遂幸靑州”.

51) 왕건의 농한기 군사 동원에 대해서는, 김명진, 『太祖王建의 天安府 設置와 그 運營』 『한국중세사연구』 22, 한국중세사학회, 2007, 52~56쪽 참고.

맞서있을 때 중요 거점 요새가 삼년산성이었다. 이제 방향만 바뀌었을 뿐, 북쪽 왕건의 고려와 남쪽 견훤의 후백제가 남북으로 맞서있는 전선에서 중요 거점 요새가 삼년산성이었다. 삼년산성은 양 세력이 첨예하게 맞서있을 때 빛을 발하는 요새였다. 왕건이 친정한 삼년산성은 후백제 영역이었다. 바로 서쪽 옆에 있는 매곡성 성주 공직이 당시 후백제 견훤 휘하에 있었다. 후백제 영역인 매곡성의 바로 동쪽에 있었던 성이 삼년산성이었다.

견훤이 공산동수전투 시 맨 처음 공격한 곳이 근품성(近品城)이었다. 근품성은 현 경북 문경시 산양면에 있었다.⁵²⁾ 견훤이 백제도성 완산(현 전북 전주)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출발하여 근품성까지 진군하였다. 그 근품성과 삼년산성은 동서로 존재하고 있었다. 완산에서 출발한 견훤은 삼년산성을 거쳐서 현 25번 국도와 비슷한 경로로 속리산 남쪽 자락을 넘었다고 판단된다. 계속해서 지리 특성상 견훤은 상주를 지나 근품성으로 갔다.

앞장에서 제시한 사료 ⑦에 의하면, 견훤은 근품성을 공격하여 불사르고 이어서 신라 고을부(高鬱府, 경북 영천)를 습격하고 신라도성(현 경북 경주)으로 쳐들어갔다. 견훤의 군사 행동은 속전속결이었다. 이러한 상황 조건에 부합하려면 견훤은 삼년산성에서 넘어와야만 했다. 따라서 왕건은 제2의 공산동수전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곳을 점령해야만 했다. 또한 삼년산성을 고려군이 깨뜨린다면 남쪽으로 계속 남진할 수 있는 유리한 전선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곳은 주목되는 공격 대상이었다.

요컨대 왕건이 삼년산성을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로 드러낼 수 있다. 공산동수전투 패배 이후의 국면전환, 후백제의 경상지역 진출로 차단, 고려의 중부내륙 남진정책(= 견훤의 북진정책 차단) 등이

52) 근품성 위치 비정에 대해서는,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공산동수전투와 신송경의 역할」 『한국중세사연구』 52, 한국중세사학회, 2018, 48~49쪽 참고.

그것이다.

그런데 왕건의 고려군은 어떠한 진군로로 내려왔을까 생각해 보자. 일단 후백제 영역인 남쪽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쪽은 속리산 자체가 가로막고 있으며, 그 남쪽 자락은 후백제군의 삼년산성과 근 품성으로 연결되는 진군로가 있으므로 이 역시 제외된다. 서쪽은 근 거리에 매곡성 성주 공적이 있어서 불가하다. 더구나 삼년산성 서쪽에 보청천이 남북으로 흐르고 있는데 이 하천이 마치 해자 내지는 방어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욱 불가한 공격방향이다.

그렇다면 북쪽에 자리한 고려군이 삼년산성의 북방 어느 쪽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다. 좀 더 구체적 진군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왕건이 삼년산성 공격에 실패하고 청주로 갔다고 하였다. 전통적으로 삼년산성이 있는 보은읍에서 청주로 가는 길은 두 갈래이다. 서쪽 보은군 회인면에 있는 매곡성 방향으로 해서 피반령(皮盤嶺)을 넘어가는 길이 하나이다. 또 다른 방법은 북쪽의 청주시 미원면 방향으로 가는 길이 있다.⁵³⁾

왕건은 928년 가을 7월 병진일에 개경에서 출발하여 삼년산성으로 내려왔다. 지리적 여건상 왕건이 이끈 고려군은 청주 또는 괴산군 방면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야만 했다. 먼저 고려군이 청주에서 내려왔을 가능성을 놓고 살펴보자. 고려군이 청주에서 피반령을 넘는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다. 피반령은 피반대령(皮盤大嶺)이라고도 하는데 고갯길이 아홉 번 꺾이어 가장 높고 위험한 곳이다. 이곳은 매곡성(매곡산성)에서 북쪽으로 약 15리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다.⁵⁴⁾ <그림 1>에 청주와 매곡성 사이에 위치한 피반령이 나타나 있다.

고려군이 이 고개를 넘어왔다고 가정할 적에 후백제군의 매곡 공

53) 보은에서 청주까지의 교통로에 대해서는, 성주탁, 『신라 삼년산성 연구』 『백제연구』 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76, 146쪽 참고.

54)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6, 충청도, 회인현, 산천, 피반대령.

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위험하였다. 이처럼 험한 곳을 넘어 간다하더라도 당시 후백제 영역인 매곡성 성주 공직의 저항을 받게 된다. 고려군은 삼년산성에 접근하기도 전에 강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므로 이 진군로는 제외되었다. 그렇다면 청주에서 현 미원면 지역을 거쳐서 삼년산성으로 오는 진군로가 적합하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청주 같은 대읍(大邑)을 거쳐 삼년산성으로 오는 진군로는 적에게 잘 드러날 수 있는 길이었다.⁵⁵⁾

따라서 고려군이 후백제군에게 노출되지 않으면서 삼년산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진군로는 괴산(현 충북 괴산군)을 거쳐 내려오는 것이 제일 자연스럽다. 더군다나 현 괴산군(괴양) 일대는 왕건이 궁예의 휘하 장수로 있을 때인 900년에 이미 정벌하여 태봉·고려의 영역이었다.⁵⁶⁾ 고려군은 개경에서 출발하여 충주⁵⁷⁾와 괴산을 거쳐 삼년산성으로 내려왔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진군로가 단거리이기에 시간 단축 효과도 있었다. 이렇게 삼년산성에 인접한 고려군의 좀 더 자세한 진군로와 전투 실상은 다음 사료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55) 또한 청주 일대는 왕건의 즉위 초 모반과 연관이 깊었던 곳이었다(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지역과 역사』 30, 부경역사연구소, 2012, 7~11쪽). 비록 이 일대의 모반은 초기에 바로 제압되었지만, 큰 전투를 앞둔 왕건으로서 삼년산성 공격에 대한 '비밀 유지'가 필요하였다. 이러한 점도 왕건이 삼년산성으로 진군할 적에 청주를 피한 이유가 되리라 여겨진다. 그러나 후퇴할 때 상황은 다르다 하겠다. 후퇴의 다급함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왔던 길로 다시 가는 것보다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었을 터이다. 여기에 더해 서쪽의 천안과 아산 등지에서 다른 고려군이 왕건을 구원하러 오기에 유리한 곳이 청주였기에 후퇴 이동은 달랐다고 판단된다.

56)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글머리, 광화 3년 경신.

57) 특히 충주는 지역 거점이면서 왕건의 제3비 신명순성왕태후 유씨(劉氏) 고향이기에 왕건에게는 안전한 후원지역이었다. 삼년산성전투와 관련하여 충주는 적극 지원하였을 터이다.

<그림 2>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6, 충청도, 보은현, 고적



<그림 2>에 의하면, 오정산성은 곧 삼년산성이라 하였다. 보은현

에서 동쪽 5리에 삼년산성이 있고, 동쪽 15리에 마현박석(馬峴薄石)이 있었다. 그렇다면 삼년산성에서 마현박석까지 거리는 불과 10리이다. 삼년산성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고, 마현박석은 그 정도 위치이면서 속리산 가는 길 도중에 현재 말티고개(마티, 말티, 말티재, 박석티, 마치馬峙)가 있다.⁵⁸⁾ 삼년산성에서 보은군 속리산면(속리산)으로 넘어가는 굽은 고개 길이 말티고개, 마현박석인 것이다. 이는 왕건이 군사들의 이동을 쉽도록 길이 질퍽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박석을 펼쳐 깔았다고 이해된다.

<그림 3> 고려군 진군로 : ① 괴산으로 가는 길(괴산거로槐山去路) →
② 마치박석령(馬峙薄石嶺) → ③ 삼년산성⁵⁹⁾



*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

58) 『한국지명총람』 3, 중북편, 한글학회, 1970, 147쪽 갈목리.

59) <그림 3>는 『보은군지도』 (1872년, 조선 고종 9)의 관련 부분을 확대하여 필자가 숫자를 기입한 것이다. 원 지도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에서 확인 인용하였다(2020년 6월 29일).

<그림 3>의 고지도를 통해서 왕건의 고려군 진군로가 이해될 수 있다. 왕건의 고려군이 괴산에서 내려와(①), 마치박석령(②)으로 올 수 있다는 진군로 설정이 가능해진다. 마치박석령(마현박석)은 현 말티고개이므로 고려군은 이곳에서 삼년산성(③)으로 나아가 공격했던 것이다. 당시 비가 많이 왔을 가능성도 있었다. 말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박석을 깔았기 때문에 이러한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군장동(軍藏洞)은 현재 그 정확한 장소가 잊혀졌지만 삼년산성에서 마현박석 사이 어느 곳에 고려군이 몰래 주둔하였기에 붙여진 이름으로 짐작된다.

고려군의 숫자는 어느 정도였을지 이에 대한 기록은 없다. 말티고개라는 지명에서 말, 기병이 고려군의 주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앞쪽에서 제시한 사료 ⑦의 927년 공산동수전투 시 왕건이 이끌고 간 군사 수가 정기오천(精騎五千)이었다. 또한 934년 9월의 제2차 운주전투 시 왕건이 친정했는데, 이때 고려군의 총 수는 경기(勁騎) 수 천 이상이었다.⁶⁰⁾ 그리고 뒤에 제시하지만 청주까지 추격한 후 백제군 숫자가 3천이었다. 이러한 삼년산성전투 전후의 사정을 보아 고려군의 숫자는 정예 기병 3천 명 정도였다고 헤아려진다.

고려군은 개경·충주·괴산을 거쳐 말티고개 가까운 곳까지 이동한 후에, 말이 미끄러지지 않게 박석을 깔고 근거리에서 삼년산성을 공격하기 위해 말티고개를 넘어 매복하였다. 고려군이 말티고개에서 삼년산성 사이의 어느 곳에 매복한 후에 공격했기에 ‘군장동’이라는 지명이 남아있었을 터이다. 전투 소요 시간은 하루 이틀 이내로 끝났을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군은 장기간 지체하면서 공격할 수 없었다. 매곡성과 일모산성, 그리고 남쪽에서 후백제군이 몰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왕건은 속전속결로 공격을 마무리해야만 했다.

60)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갑오 17년 추9월.

앞에 제시한 사료들을 기본 자료로 하고 당시 정치 상황과 지리적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삼년산성전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928년 가을 7월 병진일⁶¹⁾에 태조 왕건은 개경에서 정예 기병 3천 정도의 군사를 이끌고 출발하여 충주·괴산을 거쳐 내려왔다. 많은 비가 내려 기상조건이 기병을 이끌고 온 왕건에게 불리하였다. 일단 말티고개(마현박석)에 집결하고, 군사들을 매복시킨 후에 (군장동) 속전속결로 후백제군의 삼년산성 동쪽 및 북쪽을 공격하였다. 전투 소요 시간은 하루 이틀뿐이었다. 결과는 고려군의 실패였다. 왕건은 오래 머무를 수 없었으므로 군사를 이끌고 청주로 퇴각하였다.

그러나 아직 전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후백제 장수 김훤·애식·한장(金萱·哀式·漢丈) 등이 지휘한 3천여 명의 군사들이 청주를 공격하였다. 후백제군이 삼년산성을 공격한 왕건을 추격하여 왔던 것이다. 이때 마침 유금필이 탕정군(현 충남 아산)에서 축성(築城) 작업을 하고 있다가 왕건을 구원하러 청주로 왔다. 유금필이 이끈 고려군은 후백제군과 싸워서 격파하고, 독기진(禿岐鎭)까지 추격하였다. 이때 유금필이 후백제군을 죽이고 사로잡은 전과가 3백여 명이었다.⁶²⁾

8월에 왕건은 충주(현 충북 충주)로 피하였고, 유금필은 독기진에서의 전과를 충주로 찾아가서 왕건에게 보고하였다.⁶³⁾ 한편, 후백제 장군 김훤·애식·한장 등이 후백제군을 이끌고 청주를 공격해

61) 왕건이 즉위한 날이 병진일(丙辰日)이었다. 아마도 왕건은 비장한 각오로 자신이 즉위한 병진일을 택일하여 삼년산성전투를 직접 수행했다고 생각된다.

62) 『고려사절요』 권1, 태조신성대왕 무자 11년 7월 ; 『고려사』 권92, 열전5, 유금필. 독기진(禿岐鎭)은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9, 충청도, 온양군, 고적 남산(南山)조에 서 독기령(禿岐嶺)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독기령에 있었던 진이 독기진이었다고 이해된다. 독기진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황상 청주에서 삼년산성·매곡성·일모산성, 이 3성으로 향하는 고개 중 하나가 독기령이고 그곳에 독기진이 있었을 터이다.

63)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1년 8월 ; 『고려사』 권92, 열전5, 유금필.

왔으므로 이들은 삼년산성·매곡성·일모산성 등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 공직은 매곡성의 장군(성주)이었다. 따라서 이 세 장수들은 삼년산성 장군(성주) 또는 일모산성 장군(성주)일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아무튼 국왕 왕건이 실패한 것을 유급필이 그나마 체면을 세워주었다. 같은 달, 왕건은 개경으로 돌아가면서 삼년산성전투는 마무리 되었다.

삼년산성전투의 고려군 전체 진군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개경 → 충주 → 괴산 → 말티고개(마현박석, 군장동) → 삼년산성 → 청주 → 충주 → 개경 순이다.

이후 왕건은 삼년산성에 대한 전략을 수정하였다. 무리하게 삼년산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929년(태조 12) 12월부터 930년 정월 사이에 고창군(현 경북 안동)에서 큰 전투가 발생하였다. 고창군전투에서 왕건은 견훤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⁶⁴⁾ 국면전환에 성공한 왕건은 930년 8월에 천안부(현 충남 천안)를 설치하며 충청지역의 군사적 거점으로 삼았다.⁶⁵⁾

이러한 판세 변화에 부응하여 매곡성 장군 공직이 932년(태조 15) 6월에 왕건에게 귀부하였다.⁶⁶⁾ 왕건은 여세를 몰아 같은 해에 일모산성 공략에 성공하였다.⁶⁷⁾ 일모산성과 매곡성이 고려의 수중에 들어왔으니 삼년산성은 그 입지가 좁아졌다.⁶⁸⁾ 이러한 판단을

64) 고창군전투에 대해서는, 류영철, 「고창전투 전후의 양국관계」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경인문화사, 2005 참고.

65) 『고려사』 권1, 세가1, 태조1, 13년 추8월 을해.

66) 공직의 고려 귀부에 대한 연구는 '신호철, 「新羅末·高麗初 昧谷城(懷仁)將軍 龔直 - 지방호족 존재양태의 일단-」 『湖西文化研究』 10,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1992'와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일모산성전투와 공직의 역할」 『軍史』 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가 참고된다.

67)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5년.

68) 삼년산성, 매곡성(매곡산성), 일모산성, 이 3성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대체로 일직선상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매곡성과 일모산성이 고려의 수중으로 들어갔으니 삼년산성은 '군사지리'적으로 보아 고립된 형상이 되고 말았다.

하는 근거는 매곡성과 일모산성이 고려의 영역으로 넘어 온 뒤로 이 일대에서 후백제군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⁶⁹⁾ 삼년산성·매곡성·일모산성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진 일직선상에 있을 때 그 전선(戰線)이 견고하게 된다. 그런데 삼년산성 홀로 후백제 영역이다 보니 그 견고함이 무디어지게 되었다.

이윽고 왕건은 934년 9월에 견훤을 상대로 제2차 운주전투(현 충남 홍성)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 여파로 웅진(현 충남 공주)이 북 30여 성이 고려에 항복하였다.⁷⁰⁾ 왕건은 통일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다. 삼년산성은 더욱 고립되며 통일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렇다 할 흔적을 남기지 못하였다. 마침내 936년 9월에 고려가 통일을 완성하고,⁷¹⁾ 이후 940년인 태조 23년에 삼년산성(삼년산군, 삼년군)은 그 고을 이름이 왕건에 의해 보령군(保齡郡, 현 충북 보은군)으로 명명되었다.⁷²⁾ 이제 삼년산성은 통일고려의 평범한 군현으로 남게 되었다.

4. 맺음말

고려 태조 왕건(高麗太祖王建)이 친정(親征)함에 실패한 전투 중 하나가 928년 삼년산성전투(三年山城戰鬪, 현 충북 보은군)였다.

69)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일모산성전투와 공직의 역할」 『軍史』 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83~84쪽.

70)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7년 9월 정사. 운주전투는 총 두 차례 벌어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궁준의 역할」 『軍史』 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참고.

71) 『고려사』 권2, 세가2, 태조2, 19년 추9월.

72) 『고려사』 권57, 지11, 지리2, 경상도, 상주목, 보령군조에서는 '보령군(保齡郡)'이라는 고을 이름이 고려 초에 정해졌다고 했는데, 『대동지지』 권6, 충청도, 보은, 연혁조에서는 고려 태조 23년(940)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삼년산성은 신라 자비마립간대에 468년부터 470년까지 주로 농한기에 했수로 삼년동안 쌓았던 성이다. 이 성은 신라가 백제와 대립할 적에 군사적 요충지이자 거점 역할을 하고자 축성한 곳이었다. 삼년산성은 특히 양 세력이 대립하면서 그 경계상에 있을 때에 존재감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명은 신라와 백제, 신라 중앙 정부와 김헌창의 반란세력 등이 맞서 있을 때에 잘 드러났다.

시간이 흘러 10세기 초에는 남·북으로 포진하는 경계에 삼년산성이 자리 잡게 되었다. 북쪽 왕건의 고려와 남쪽 견훤의 후백제가 이 성을 경계로 맞서 있었다. 삼년산성은 일찍이 견훤의 수중에 있었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즉위한 후에 대체로 국세가 상승하는 형상이었다. 그러다가 926년에 특이한 사건이 발발하였다. 전해인 925년 겨울 10월에 양국은 질자(質子)를 교환하였다. 왕건의 사촌 동생인 왕신(王信)과 견훤의 사위 진호(眞虎)가 양국의 질자로 교환되었다. 그런데 불과 6개월 후인 926년 여름 4월에 고려에 온 후백제 질자인 진호가 병사하고 말았다. 이를 견훤은 고려가 일부러 죽였다고 분노하였다. 결국 고려 질자 왕신은 후백제에서 처형당하고 두 진영의 대격돌이 예상되었다.

특히 927년에 양국은 무려 9차례나 격돌하였다. 그 중에서 공산동수전투(현 대구 팔공산)가 벌어지기 전에 양국은 6차례 격돌하였는데 용주(현 충남 공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고려의 승리였다. 견훤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927년 9월부터 시작된 공산동수전투를 감행하였다. 결과는 왕건의 고려군이 대패를 당하였다. 이 전투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려군은 후백제에게 군사적으로 밀리고 있었다. 이번에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왕건의 군사적 행동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타개책으로서 왕건은 삼년산성 친정을 택하였다. 왕건이 삼년산성을 선택한 이유는 세 가지였다. 공산동수전투 패배 이후의

국면전환, 후백제의 경상지역 진출로 차단, 고려의 중부내륙 남진정책(= 견훤의 북진정책 차단) 등이 그것이다.

928년(태조 11) 가을 7월 병진일에 왕건이 직접 이끈 고려군은 개경에서 출발하여 충주와 괴산을 경유하며 속리산 서쪽 자락인 마현박석(말티고개)으로 내려왔다. 고려군의 숫자는 정기(精騎) 3천 정도가 아닐까 한다. 고려군은 마현박석에서 삼년산성 사이의 어느 곳(군장동)에서 매복한 후에 근거리에 있는 삼년산성의 동쪽 및 북쪽을 속전속결로 공격하였다. 후백제 원정군이 올 수 있는 상황이기 에 하루 이틀에 걸쳐 공격하였다. 그러나 왕건의 삼년산성 공격은 실패하고 말았다.

왕건의 고려군은 청주로 물러났다. 하지만 후백제군은 3천의 군사로 왕건을 추격해 왔다. 이때 탕정군(현 충남 아산)에 있던 고려 유금필이 원정군을 이끌고 와서 후백제군을 막아 독기진까지 쫓으면서 패퇴시켰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왕건의 삼년산성 친정은 실패하였다. 삼년산성전투의 고려군 전체 진군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개경 → 충주 → 괴산 → 말티고개(마현박석, 군장동) → 삼년산성 → 청주 → 충주 → 개경 순이다. 이후 왕건은 전략을 수정하였다. 그는 무리하게 삼년산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고립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929년 12월·930년 정월에 고창군전투(경북 안동)에서 왕건은 견훤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 930년 8월에는 천안부(충남 천안)가 설치되어 충청지역의 군사적 거점이 되었다. 이러한 판세 변화에 부응하여 삼년산성 서편에 있는 매곡성장군(현 충북 보은군 회인면) 공직이 932년(태조 15) 6월에 왕건에게 귀부하였다. 왕건은 여세를 몰아 같은 해에 매곡성(매곡산성) 서편에 있는 일모산성(현 충북 청주시 문의면) 공략도 성공하였다. 일모산성과 매곡성이 고려의 수중에 들어왔으니 삼년산성은 그 입지가 좁아졌다.

이욱고 왕건은 934년 9월에 견훤을 상대로 제2차 운주전투(현 충남 홍성)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이 여파로 웅진(현 충남 공주)이 북 30여 성이 고려에 항복하였다. 삼년산성은 더욱 고립되며 통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렇다 할 흔적을 남기지 못하였다. 마침내 936년 9월에 고려가 통일을 완성하고, 이후 940년인 태조 23년에 삼년산성(삼년산군, 삼년군)은 그 고을 이름이 왕건에 의해 보령군(保齡郡, 현 충북 보은군)으로 명명되었다. 이제 삼년산성은 통일고려의 평범한 한 군현으로 남게 되었다.

(원고투고일 : 2020. 6. 30, 심사수정일 : 2020. 8. 14, 게재확정일 : 2020. 8. 25.)

주제어 : 고려, 왕건, 후백제, 견훤, 삼년산성, 삼년산성전투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절요』, 『신증동국여지승람』
『세종장헌대왕실록』 지리지, 『대동지지』
『보은군지도』 (1872년, 조선 고종 9)
『한국지명총람』 3, 충북편, 한글학회, 1970.
『三年山城』,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001.
『문화유적분포지도 - 보은군』, 보은군·중원문화재연구원, 2005.
한국성곽학회, 『삼년산성』, 충청북도, 2008.

2. 논문

- 김명진, 「太祖王建의 天安府 設置와 그 運營」 『한국중세사연구』 22, 한국중세사학회, 2007.
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1262.2007..22.001&res_svc_cd=
_____, 「고려 태조 왕건의 아산만 일대 공략과정 검토」 『지역과 역사』 30, 부경역사연구소, 2012.
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1416.2012..30.007&res_svc_cd=
_____, 「고려 태조 왕건의 일모산성전투와 공직의 역할」 『軍史』 8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2.
<http://dx.doi.org/10.29212/mh.2012..85.61>
_____, 「고려 태조 왕건의 質子政策에 대한 검토」 『한국중세사연구』 35, 한국중세사학회, 2013.
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1262.2013..35.003&res_svc_cd=

김명진, 「고려 태조 왕건의 운주전투와 궁준의 역할」 『軍史』 9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5.

<http://dx.doi.org/10.29212/mh.2015..96.173>

_____, 「고려 태조 왕건의 삼한일통과 왕실 신성화 검토」 『한국중세사연구』 46, 한국중세사학회, 2016.

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1262.2016..46.003&res_svc_cd=

_____, 「고려 태조 왕건의 공산동수전투와 신승겸의 역할」 『한국중세사연구』 52, 한국중세사학회, 2018.

_____, 「고려 태조 왕건의 공주 일대 공략과정 검토」 『한국중세사연구』 56, 한국중세사학회, 2019.

류영철, 「공산전투의 재검토」 『향토문화』 9·10합집, 향토문화연구회, 1995.

민병하, 「申崇謙과 公山桐藪 戰鬪」 『軍史』 29, 국방군사연구소, 1994.

<http://uci.or.kr//G901:A-0001014171@N2M>

서정석, 「백제 산성을 통해 본 황산벌전투의 현장」 『역사교육』 91, 역사교육연구회, 2004.

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0198.2004..91.001&res_svc_cd=

_____, 「의자왕의 전략과 황산벌전투의 실상」 『軍史』 7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0.

<http://dx.doi.org/10.29212/mh.2010..76.1>

성주탁, 「신라 삼년산성 연구」 『백제연구』 7,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1976.

신성재, 「고려와 후백제의 공산전투」 『한국중세사연구』 34, 한국중세사학회, 2012.

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1262.2012..34.002&res_svc_cd=

신호철, 「新羅末 高麗初 昧谷城(懷仁)將軍 龔直 -지방호족 존재양태의 일단-」 『호서문화연구』 10,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1992.

주보돈, 『新羅 下代 金憲昌의 亂과 그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51, 한국고대사학회, 2008.

http://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0848.2008..51.003&res_svc_cd=

차용걸, 『삼년산성 곡성형식의 비교연구』 『인문학』 38,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9.

3. 단행본

류영철,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경인문화사, 2005.

신성재, 『후삼국 통일전쟁사 연구』, 해안, 2018.

4. 기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 규장각 원문검색서비스(20200629 확인 인용)

<http://kyu.snu.ac.kr/>

(Abstract)

Review of the background and progress of the battle of 'Samnyeon Sanseong' (fortress) led by Taejo Wang Geon of Goryeo Dynasty

Kim, Myeong-jin

It was the Battle of Samnyeon fortress, which located in Boeun county of Chungbuk province, in 928 that had been only to fail among the combats that Goryeo Taejo Wang Geon took lead directly. Constructed in the reign of King Jabi, the fortress 'Samnyeon Sanseong' would be used as a military base in the event of hostilities between Silla and Baekje dynasty. This fortress had a noble key role in the event of two hostile forces's conflict. Its presence most notably revealed itself when there were confrontations between Silla and Baekje dynasty, and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of Silla and the rebellious forces led by Kim Heonchang.

Over time, early in the tenth century, the fortress was situated on the south-north borders, where Wang Geon's Goryeo in the north and Gyeon Hweon's Hubaekje(the late Baekje dynasty) in the south confronted each other. This fortress was in control of Gyeon Hweon at that time, and there had been so many spate of violent clashes in 927 clashes between the two sides. The largest one of them all was the Battle of Gongsan Dongsu (located in current Daegu), where Wang Geon suffered a crushing defeat. Wang Geon's eagerness to redeem his defeat led him to launch a military operation against this fortress, known as the Battle of Samnyeon Sanseong.

The attack on the fortress in july of 928 by the Goryeo's army, led by Wang Geon, was a failure. After that, he changed his strategy to focus on isolating the fortress, instead of forcibly

attacking it. Due to his isolation strategy for the fortress, there had been long deadlock status until the end of war. In 936, Wang Geon finally completed the re-unification after the victory of campaign against the late Baekje dynasty. he named the town of Samnyeon Sanseong as Boryeong County in the year of 940. This resulted in Samnyeon Sanseong remaining not notable among the counties and prefectures of the Unified Goryeo.

Keywords : Goryeo, Wang Geon, Hubaekje, Gyeon Hwon, Samnyeon Sanseong, the Battle of Samnyeon Sanseong

